

다산학 39호 (2021.12) | 065~112

『매씨서평』의 문헌적 검토 — 『채화정집』과 『정본 여유당전서』의 비교

노지현 | 프랑스 리옹3대학교 한국학과 부교수

목차

1. 머리말
2. 『매씨상서평』에 대한 경기학자들의 평가
3. “「사」 50”에서 “「원사」 40”으로의 형식적 변화 분석
4. “「사」 50”에서 “「원사」 40”으로의 내용적 변화 분석
5. 맺음말

1. 머리말¹⁾

본 논문은 『채화정집菜花亭集』의 『매씨상서평』²⁾의 권2~4에 걸쳐 있는 「사」 50조에서 『정본』, 『매씨서평』 권 3~4에 걸쳐 있는 「원사」 40조의 변화 과정을 분석한 글이다. 여기서 변화란 형식적 변화와 내용적 변화를 의미한다. 형식적 변화는 “50에서 40으로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하며 내용적 변화는 문체, 개작이나 첨삭의 변화를 뜻한다. 어떻게 변했는지를 통해서 왜 그렇게 변했는지를 알아봄으로서 다산의 생각의 변화를 가늠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겉표지에 『채화정집』이라고 쓴 『매씨상서평』 권 1~3(그림 1)은 단국대학교 연민문고 소장의 필사본³⁾이고 나머지 권 4~9는 김영호가 소유하고 있던 필사본이다. 이 두 필사본을 합하면 현존하는 『매씨서평』의 가장 오래된 한 질의 초고본이 완성된다.⁴⁾ 『매씨서평』은 『매씨상서평』을 수정 후 1834년에 개명한 것이다. 또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은 안표지에 “與猶堂集卷之16~24”라고 차례를 매겨놓았다(그림 2). 따라서 이것은 다산이 1816년에 유배지 강진에서 자신의 저작을 정리하며 적어 놓

1) 이 논문에 나오는 번역문들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수정해 주신 고려대학교 명예교수(한문학과) 김언종 교수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미비한 것들은 전적으로 필자의 책임이다.

2) 『채화정집』 겉표지에는 『상서평』이나 안표지에는 『매씨상서평』이다. 필자는 일관되게 『채화정집』의 필사본을 『매씨상서평』이라 부를 것이다.

3) 이 필사본의 서지적 정보는 김보름,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매씨상서평』의 학술적 가치에 대하여」, 한문학보 27권 0호, 우리한문학회, 2012, 143쪽에 나와 있고, 2019년 간행된 『다산학사전』 487쪽에도 명시되어 있다.

4) 「『매씨서평』 단국대 소장본」, 『다산학사전』, 사암, 2019, 487쪽; 김보름,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매씨상서평』의 학술적 가치에 대하여」, 『한문학보』 27, 우리한문학회, 2012, 150쪽의 주 21) 참조.



그림 1



그림 2

은 필사본으로 보이지만⁵⁾ 현존하는 『채화정집』이 1816년에 필사한 것인지 아니면 1821년 이후에 필사한 것인지에⁶⁾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채화정집』 필사본이 유배지에서 필사된 최초의 필사본이거나 아니면 그 이후의 필사본이라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모두 남아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 3장과 제 4장에서 다룰 것이다. 중요한 것은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매씨서평』의 필사본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정약용 상서학의 변화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때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⁷⁾ 왜냐하면 초고본과 최종본의 차이가 분명히 존

5) 김문식, 「정약용의 『상서』 주석서 계열 고찰」, 『다산 필사본 연구』, 다산학술문화재단, 2019, 335쪽.

6) 김문식, 위의 논문, 297쪽 10번 주석 참조.

7) 다산학술문화재단 편, 『다산학사전』, 사암, 2019, 489쪽.

재하기 때문이다. 다산의 『매씨상서평』이든 『매씨서평』이든 책의 권 1~4는 『상서』와 관련된 맥락적 분석(contextual analysis), 즉 전승사나 서평이 주를 이루고 권 5~9는 위작이라 간주되는 고문 『상서』 25편 본문에 대한 직접적인 텍스트 분석(textual analysis)이 주를 이룬다.

1816년 여유당집 시리즈를 정리하기 6년 전인 1810년에 다산은 『상서평』⁸⁾을 완성하였고 흑산도에 유배가 있던 손암 정약전에게 이 책을 보여주었다. 손암은 1811년 가을에 이 책의 서문을 써서 다산에게 보냈다. 이것을 보면 1810년에 쓴 다산의 『상서평』에는 아마도 서문이 없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에는 다산 자신이 직접 쓴 서문이 존재한다.⁹⁾ 그리고 이 서문이 실려 있는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을 해배 후 경기학자들에게 보여주었는데 1819년에서 1827년에 걸쳐 이 책에 대한 토론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매씨상서평』에 관련된 일련의 비판의 과정을 통하여 다산은 1834년 전에 권 1~4를 대폭 수정한다. 그리고 나머지 권 5~9를 1834년에 수정한다. 이것을 한 눈에 보기 쉽게 『다산학사전』 488쪽에 도표로 옮겨 놓았으니 여기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는다.

여기서 다룰 주제는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 권 2~4에 걸쳐 있는 “『사』 50”과 최종본인 『정본』 『매씨서평』의 “『원사』 40”의 변화 과정의 분석에 있다. 이 “『사』 50”의 내용이 애초에 어떻게 쓰였었는지 또 경기학자들에게 어떤 지적을 받았었는지 마지막으로 여러 지적을 받은 후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살펴볼 것이다. 그러기 위해 가장 자연

8) 『채화정집』 표지에도 『상서평』이라 쓰여 있음을 볼 수 있듯이 손암과 나눈 글이나 손암의 서문에도 항상 『상서평』이란 이름으로 언급되었다.

9) 두 서문의 차이에 대한 형태 분석은 김문식, 『정약용의 경학과 경제학』, 단국대학교 출판부, 2021, 53~65쪽 참조.

스러운 논문 전개 방식은 먼저 “「사」 50”의 내용을 분석하고 경기학자들과의 서간문을 본 후 마지막으로 『매씨서평』을 분석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21세기 독자들과 학자들의 시점에서 - 처음으로 최초의 필사본을 보는 입장에서 - 논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전개를 통하여 그 동안 가져온 의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보다도 다산의 여과 없는 글쓰기 방식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통하여 그가 『상서』 주석가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었는지 즉 학자로서의 에토스가 어떠했는지에 대한 것을 엿볼 수 있고 또 필사본을 고치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을 고려했는지를 통해서 또 다른 학자의 면모를 찾아보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2. 『매씨상서평』에 대한 경기학자들의 평가

다산의 『매씨상서평』을 읽고 다산과 편지를 통해서 왕래한 학자들은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1819년에서 1826년에는 다산은 그의 생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석천 신작(1760~1828)과 교류했다. 신작은 강화학과와 한학에 영향을 받은 소론출신의 학자이다. 그 다음으로는 1821년 말에서 1822년 사이에 대산 김매순(1776~1840)과 그의 학우 정산 김기서(1765~?)가 있다. 김매순은 다산의 규장각 동학이었는데 글을 잘 써서 후에 “여한십대가”의 한 명이 된 노론 출신의 학자이다. 김기서는 주자학을 숭배하던 노론 출신의 학자인데 다산의 『매씨상서평』을 매우 꼼꼼히 읽고 김매순 편에 다산과 편지글을 주고받았다. 마지막

으로 1827년 말에 영향력 있는 노론가문 출신이지만 다산과 인척관계에 있던 연천 홍석주(1774~1842)와 그의 아우 해거 홍현주(1793~1865)가 있다. 홍석주는 성리학, 고증학, 불교, 도교, 양명학 등 여러 학문을 받아들이면서 또 후에 “여한십대가”의 한 명이 된다. 이렇듯 다산은 지적 정치 성향이 다른 학자들과 자유롭게 교류한 것을 볼 수 있다.¹⁰⁾ 또한 이런 교류를 통해 남긴 편지글들을 통해 다산의 저술이 얼마나 경기학자들에게 흥미를 유발했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필자는 다산이 여러 경기학자들에게 보여준 책이 바로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김기서의 편지글에 나와 있는 한 구절 덕분이다.

而今讀「辭辨」五十條，絕無理勝，毫無過當。但發憤痛罵時，不免有浮揚迫促之音。

그러나 지금 「사변詞辨」 50조를 읽어보니 구절구절마다 이치가 승하여 조금도 지나친 곳이 없습니다. 다만 분노하여 통렬하게 매도할 때에 들뜨고 지나치게 몰아붙이는 듯한 말투가 없지 않습니다.¹¹⁾

여기서 “「사변」 50조”라는 표현에 주목해보자. 수정본인 『매씨서평』에는 「원사」가 1~40까지 있다. 즉 「사변」은 다산이 모기령의 『고문상서원사古文尙書冤詞』를 읽고 쓴 서평으로 모기령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10) 김문식, 『朝鮮後期經學思想研究 - 正祖와 京畿學人을 중심으로』, 일조각, 1996.

11) 정약용, 김매순 외, 『다산과 대산·연천의 경학논쟁』, 한길사, 2000, 47쪽.

부분에 대한 다산의 변론을 뜻한다. 예상할 수 있듯이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에는 「사」가 50까지 있다. 즉 김기서가 읽은 책은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또한 김기서가 다산의 말투에 대해서 지적한 것도 유념해 두자. 이 글은 1822년 음력 1월 29일에 쓴 글이다.

삼 일 후, 즉 음력 1822년 2월 1일에 김기서는 다시 김매순의 편에 다산에게 또 다른 별지를 전한다.

是書之作, 本因毛也 ‘冤’字之一字而起意. 故名之曰‘平’, 既曰‘平’, 故其文多用按獄之體, 或爲才藝所使, 或近於戲劇, 往往有反效毛氏筆意者, 是爲大欠. 愚願與猷甸中歸却梅也毛也, 只以經正理明爲心, 文體務從謹嚴, 辭氣要近平正, 別成『古文尚書辨』一本, 俾作日月不刊之書, 梅氏亂經之失, 毛氏侮賢之罪者, 自不可掩, 而懲討之嚴, 反有勝於以‘平’爲名, 未知如何?

이 책의 저술은 원래 모기령의 ‘원’冤이라는 한마디로부터 발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 ‘평’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글이 상당 부분 옥사를 판결하는 문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 일부는 재예에 말려들고 또 일부는 회극¹²⁾에 가깝기도 하는 등 왕왕 모기령의 문체가 의도하는 바를 도리어 모방하는 부분도 있어 이것이 큰 흠이 되고 있습니다. 내 바람으로는 여유당께서 매씨든 모씨든 마음 안에서 끌어내고 오직 경문의 바름과 이치의 명확함만을 지향하여 근심하고도 무게 있는 문체

12) 이봉규는 회극을 ‘말장난’으로 번역했으나 필자는 ‘회극’이라고 그대로 옮긴다.

가 되도록 힘쓰는 한편, 어세는 되도록 평정하려고 노력하면서 별도로 『고문상서변』 한 책을 완성하여 세월이 가도 없어지지 않는 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매씨가 경전을 어지럽힌 잘못과 모씨가 선현을 업신여긴 죄가 자연히 은폐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을 징계하고 성토한 위엄도 ‘평’이라고 이름붙인 책보다 도리어 더 높을 것입니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¹³⁾

김기서는 『매씨상서평』의 문체에 흠이 있음을 다시 지적하였다. 이 점은 김기서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학자들과 나눈 서간문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다. 또 ‘회극’을 언급한 점도 유념해 두면서 또 같은 편지에서 한 다른 지적을 읽어보자. 다산의 허구적 글쓰기 다시 말해 오래된 사실을 마치 자신이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에 대해 그것이 객관적인 글 쓰기 방식인지를 묻는다.

舜禹授受之際, 既不參聽, 梅賾偽造之時, 亦不目覩, 不必汲汲強辨, 惟當據理論事.

순과 우가 지결을 전수할 때 같이 참여하여 들은 것도 아니고 또 한 매씨가 위조할 때 직접 눈으로 본 것도 아니라면 억지로 변석하기 위해 끝끝내 골몰할 필요 없이 오직 합리적인 이치에 근거하여 사안들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¹⁴⁾

13) 정약용, 김매순 외, 『다산과 대산·연천의 경학논쟁』, 한길사, 2000, 59쪽.

14) 정약용, 김매순 외, 『다산과 대산·연천의 경학논쟁』, 한길사, 2000, 58쪽.

이 표현은 ‘회극’과 맞물려 있다. 위의 편지에 다산은 다음과 같이 답장한다. 여기서 말한 ‘회극’은 다산의 시대에 중국에서 유행한 패관문학을 연극으로 옮긴 장르를 뜻하는 것 같다. 다산은 이 편지의 답장에서 패관문학이란 말을 쓴다. 이 점이 ‘회극’을 ‘말장난’이라 번역하지 않고 그대로 옮기는 이유이다.

況『書平』,乃流落寂初年所作. 彼時習氣未除, 幽憤未平, 遇有觸激, 須卽一場痛罵, 方纔小快. 此豈學道人事耶? 仁兄亦當看之如稗官小說, 不必備數於斯文也. (….) 若永日詳檢, 吾恐全體無完膚也.

하물며 『매씨상서평』은 유배지로 내려간 첫 해에 지은 것입니다. 그때에는 젊은 습기習氣가 미처 제거되지 못하였고 깊은 울분도 가라앉히지 못하여 우연히 부딪혀 격발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한바탕 통렬하게 욱을 퍼부어야 겨우 조금이나마 후련해졌으니 이것이 어찌 도를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이겠습니까? 형께서도 의당 패관소설을 보듯이 하여야지 우리 유학의 대열에 끼일 수 있는 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 만일 여러 날을 상세히 검토하였다면 온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¹⁵⁾

이 글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가지이다. 먼저 “울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글을 썼다고 고백하는 점이고 다음은 다산이 자신의 상서 주석을 통속적인 “패관문학”에 비교했다는 점이다. 패관문학이란 말은 아마도 허구적 글쓰기의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는데 이 말이 자신의 글

15) 정약용, 김매순 외, 『다산과 대산·연천의 경학논쟁』, 한길사, 2000, 61~62쪽.

을 낮추는 겸사로 읽힐 수도 있겠으나 이제 경기학자들이 읽었던 초고본이 있으니 어느 정도 무엇을 뜻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게 되었다.

1819년에 교류를 시작한 신작은 이후에 『상서』에 관한 네 가지 저작을 남기는데 그 당시 그가 쓰고 있던 책에 대해 잠시 언급하고 다산의 “「사」 50”과 관련된 것을 암시하는 듯한 편지를 1824년 4월에 보낸다.

『書』說纔就緒,而須三易藁,方可示人. 令若有賁臨之意,『古文冤辭』辨,必須袖來,與我互相考質,如何?

『상서』에 관한 설은 겨우 가닥이 잡힌 것 같지만, 세 번 정도 초고를 고쳐야만 남에게 보여줄 수 있을 듯합니다. 공이 만약 이곳에 왕림해주실 뜻이 있거든 모기령의 『고문상서원사』에 대한 변을 반드시 소매 속에 넣고 와서 나와 함께 상고하고 질정함이 어떨겠습니까?¹⁶⁾

이것은 석천이 다산에게 “「사」 50” 부분을 반드시 고쳐야 함을 암시하며 그러기 위해 최대한 충고를 아끼지 않으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될 여지를 준다. 김문식은 석천의 위 글을 번역한 후 주 5)에서 “모기령의 『고문상서원사』에 대한 변”이 『매씨상서평』의 권 3~4에 있는 「원사」 1~40을 가리킨다고 했으나, 신작이 이 때 읽은 책은 수정하기 전의 『매씨상서평』이었음이 밝혀졌다. 그러므로 모기령의 위 저작에 대한 변은 권 2~4에 걸쳐있는 「사」 1~50이다. 이 가정의 또 다른 증

16) 정약용, 신작, 『다산과 석천의 경학논쟁』, 한길사, 2000, 166~167쪽.

거로는 신작의 『석천유고』에 실려 있는 편지글¹⁷⁾이 다산의 『매씨서평』, 「원사」 13에 나오는데,¹⁸⁾ 이 편지를 보낸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석천의 문집에 1826년 4월 이후의 편지 다음에 배열된 것을 보면 그 이후에 보낸 편지로 보인다. 따라서 석천이 읽은 것도 초고본 『매씨상서평』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827년 음력 11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열흘 동안 다산과 홍석주, 홍현주 사이에 네 통의 상당히 긴 편지가 오갔다. 이때 오갔던 편지 중에서 홍석주가 첨한 첫 번째 문제가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 권 1, “장패소현위조상서 제3”¹⁹⁾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때 다산이 보여준 본도 수정 이전의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여러 점들을 보았을 때, 경기학자들이 본 버전이 바로 우리가 읽을 『매씨상서평』임이 분명하다.

홍석주는 다산의 『매씨상서평』을 읽고 긴 첨을 부쳐오는데 거기에 다음과 같은 총평을 덧붙였다.

見解之透也, 攷證之博也, 文辭之馳騁出口也, 森□武庫之戈矛, 鑿鑿乎秦越人之鍼石, 直可使毛甡悖儒奪席囚舌, 奇乎哉! 古未嘗有也. 抑嘗聞程夫子有訓曰: “與人辯者, 理勝則事明, 氣忿則招拂.” 有味乎, 其言之也! 凡事皆然, 談經者尤甚. 著眼須明, 而持心則不可不平, 立論宜確, 而遣辭則不可不婉. 朱夫子之既疑其假, 而猶不敢質, 豈或其失之太寬哉?

17) 정약용, 신작, 『다산과 석천의 경학논쟁』, 한길사, 2000, 173쪽.

18) 정약용 지음, 이지형 역주, 『역주 매씨서평』, 문학과지성사, 2002, 171쪽.

19)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 「상을 5」 참조.

투철한 견해, 해박한 고증, 종횡으로 달리는 문장은 삼라한 무기
고의 창과 방패이며, 정확한 진월인의 날카로운 침과 같아 곧장
모신과 같은 반역적인 유자의 자리를 빼앗고 혀를 가두어버렸습
니다. 대단합니다! 옛적에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정자
의 가르침에 “남과 논변하는 자는 이치가 뛰어나면 일이 분명해
지고, 성질을 부리면 일을 그르친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을 음
미해 볼만 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경을 담론하는 사람은
더욱 그러합니다. 착안은 모름지기 분명하게 하되 마음가짐은 평
정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입론은 확실히 하되 말을 할 때는 완곡하
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자도 이미 그것이 가짜임을 의심하였지
만 그래도 감히 단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으니, 너무 너그러워서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²⁰⁾

홍석주도 다산의 문체와 작가로서의 에토스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다산의 문체에는 이치가 분명한 것을 넘어 분에 못 이기는 듯한 거슬리
는 말투가 있음을 완곡하게 말한 것이다. 이 글에 다산은 1827년 음력
12월 8일의 답신에 다음과 같이 답한다.

籤云, 見解之透【云云】: 若使鄙人蚤見閻·宋之撰, 不應枉勞至此? 特以
井蛙之見, 或恐毛說眩惑, 梅僞偃息, 胡叫亂嚷, 不覺下堂而摔髻. 今蒙
台諭, 不覺愧赧, 然人之所以研經而求道者, 爲將誠意而正心也. 明知其
僞而無眞切嫉惡之心, 不可曰‘厚德’. 其或有虞於菑, 及寧含默不言, 豈

20) 정약용, 김매순 외, 『다산과 대산·연천의 경학논쟁』, 한길사, 2000, 145쪽.

可飾詐文奸, 如毛西河之爲耶?

침에서 “견해가 투철하다”(등등)이라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소견으로 모기령의 설에 현혹되고 매색의 위작이 편안하게 존속될까 염려되어 목소리를 높여 외치다가 저도 모르게 마루에서 내려와 상투를 붙잡고 싸우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주신 말씀을 받고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경전을 연구하고 도를 구하는 것은 앞으로 뜻을 성실히 하고 마음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작임을 분명히 아는 이상 절실하게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후덕하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 재앙이 몸에 미칠까 걱정된다면 차라리 입을 다물고 침묵을 지킬 것이지 어찌 거짓을 꾸미고 간교한 짓을 하는 모기령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²¹⁾

다산은 여기서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변호하고 있다. 논리가 명확하면 그 위에 자신의 감정을 뒤섞어 표현해도 그것이 경전 연구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지금까지 본 학자들과의 편지글들을 통해서 본 것을 짧게 정리하자면 신작, 김매순, 김기서, 홍석주가 본 『매씨상서평』은 확실히 수정하기 전의 『채화정집』 필사본이며 다산의 글쓰기에 대한 장점으로서는 날카로움과 공격성에 있으나 또 그것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 비판할 때 날카로움이 강해져 말투가 귀에 거슬리

21) 정약용, 김매순 외, 『다산과 대산·연천의 경학논쟁』, 한길사, 2000, 166~167쪽. 번역은 약간 수정했다.

고 공격성이 너무 강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여기에 덧붙여 주관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허구성을 지적한 것도 유념해두자.

그리고 다산은 여러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819에서 1827년 까지 여러 해 동안 거의 비슷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산은 『매씨상서평』의 맥락적 분석 부분을 몇 년이 지난 후에 한 것으로 보이고²²⁾ 나머지 텍스트 분석은 1834년에 했음을 자신이 밝히고 있는 ‘발’에 쓰인 문구로 알 수 있다. 다산은 어쩌면 자신의 『상서』 주석을 수정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는지도 모른다.

3. “「사」 50”에서 “「원사」 40”으로의 형식적 변화 분석

“「사」 50”과 “「원사」 40”은 삼분의 일이 넘는 부분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바로 이 다름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형식상 「사」 50 에서 「원사」 40 으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아래 표1에서 한눈에 볼 수 있다.

22) 조성일은 다산이 1831년에 『매씨상서평』 권 1~4를 수정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조성일,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 - 살살이 파헤친 그의 삶』, 지식산업사, 2016, 789쪽.

목차 ²³⁾	『채화정집』 「사」	정본 「원사」	목차	『채화정집』 「사」	정본 「원사」	목차	『채화정집』 「사」	정본 「원사」
1)	1	1	15)	23, 24	14	29)	39	28
2)	2	2	16)	25	15	30)	40	29
3)	3, 4	3	17)	26	16	마지막장	유	무
4)	5 ~7	4	18)	27	17	31)	41	30
5)	8	5	19)	28	18	32)	42	31
6)	9	무	20)	29, 30	19	33)	43	32
7)	10	6	21)	31	20	34)	44, 45	33
8)	11	7	22)	32	21	35)	46 (1)	34
9)	12	8	23)	33	22	36)	46 (2), 47	35
10)	13~15	9	24)	34	23	37)	48	36
11)	16~18	10	25)	35	24	38)	49	37
12)	19	11	26)	36	25	39)	무	38
13)	20, 21	12	27)	37	26	40)	무	39
14)	22	13	28)	38	27	41)	50	40

표1

위의 표를 보면 『매씨상서평』, 「사」 9의 내용이 『매씨서평』, 「원사」에 해당하는 것이 없고, 『채화정집』에 있는 마지막 장이 『매씨서평』에는 빠져있으며 「원사」 38과 39에 해당하는 것이 「사」에는 없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위의 목차를 기본으로 하여 필사본에서 정본으로 변환 것을 나름 정의하며 예문을 넣어 작성한 표이다.

23) 이 목차는 다음 표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필자가 임의로 매긴 것이다. 예를 들어 17)은 『채화정집』, 「사」 26이 「원사」 16으로 변환 것임을 의미한다. 숫자 뒤에 괄호가 있음에 주목하자.

목차	차이	예문
1)	많이 다름.	
2)	직설적에서 학술적으로.	
3)	어조 순화. 직설적에서 학술적으로.	一字(半句), 片言(雙詞) 如鬼如魅 삭제 托于无形, 蹈於無跡 수정
4)	「사」 6요약, 구어체에서 문어체로, 내용 유사.	
5)	의문문에서 서술문으로, 주관적 해석에서 학술적 해석으로.	
6)	『채화정본』 주석 삭제.	
7)	요약. 모기령 비판 삭제, 약간 다름.	乃毛氏冤詞…君子用心一何至此?(군자가 마음 쓰기를 어찌하여 한결같이 이토록 한 것인가?) 한국어를 직역한 듯.
8)	모기령 비판 삭제, 어조 순화.	舞弄如此, 天下有此儒乎 삭제 天下有此篇乎 삭제 今也舞弄漢志, 遮梅本, 抑何心哉 삭제
9)	약간 다름, 「사」 10의 모기령 비판 「원사」 9에 활용.	
10)	어조 순화, 요약, 모기령 비판 삭제.	舞文弄法莫此如是乎(「사」 13) 毛氏氣驕血操, 全無公心(「사」 13)
11)	「사」 16 과 거의 동일. 「사」 17 요약, 다시 씀. 「사」 18 완전 개작. 의문문에서 서술문으로, 학술적으로.	「사」 17에 매색 비판 문구 삭제(則三篇俱亡, 大義都晦, 其亂經滅籍之罪, 當服何律?) 「사」 18 앞부분 두 줄 삭제(다산의 편명의 숫자와 관련된 결론). 爲誰爲某: 爲甲爲乙, 毛氏何以謂之謬戾.
12)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씀.	見王氏考異: 見王應麟考異
13)	스토리텔링식 서술에서 학술적으로, 완전 개작.	
14)	정본에 석천 신작 인용, 개작과 삭제. 충경에 대한 주석만 가져옴, 「대우모」 16자 심법 주석 삭제.	김매순에게 지적받은 인심도심설 삭제.
15)	모기령 비판 삭제. 알기 쉽게 전승사 관점을 부각하여 개작.	傳者, 流傳也, 非傳註之傳. 毛氏舞文, 欲爲梅本尚書, 有經無傳之證, 不亦詐乎?(전이란 전해지는 것이지 전주의 전이 아니다. 모씨는 글을 가지고 놀면서, 매색본을 『상서』로 만들고자 하여 경은 있는데 전이 없다는 것을 증거로 들고 있다. 바로 속임수가 아닌가?)

16)	내용 약간 변경, 모기령에 대한 평가 절제, 비유 표현 삭제, 여백의 노트는 문법 보충 설명.	毛欲表章一個傳字，以立其強辯，不已窘乎？指鹿爲馬，以鼠爲璞，上誣千古，下欺千世，可乎？安得舞弄如是，奚特開眼？(어떻게 이토록 글을 우롱하면서 똑바로 눈을 뜨라고 하는가?) 雖洗眼拭眼而觀之，經傳具備也。(그러나 눈을 씻고 비벼서 보면 (매색본은) 경과 전이 모두 구비된 것이 보이 것이다.)
17)	거의 동일, 「상계 9」 삭제(확신에 찬 추측).	모군 毛君에서 모씨 毛氏로 변경
18)	거의 동일, 주 첨가.	
19)	어조 순화, 약간 수정.	“此又舞文也”로 시작되는 글 삭제. 여백에 쓴 글을 『정본』의 주에 삽입.
20)	많이 다름, 어조 순화, 보다 객관적으로.	此又舞文也로 시작하는 문장 삭제. 陸意如此，而舞弄唯意，黑白都變，不亦甚乎…：陸意如此，本無可怒，一時齊出，未足榮也，兩本差殊，未足羞也.
21)	거의 동일, 『정본』이 더 자세함.	
22)	약간 다름.	제·양 때의 소연의 예 첨가
23)	약간 다름, 어조 순화, 과두문자 상서전승사 더 자세히 다름.	
24)	약간 다름, 어조 순화, 4행 완전 개작.	
25)	문단 앞부분 개작.	腐儒寒士，蔀屋，皇恐，金匱，聚黨千有餘人，雜說 삭제.
26)	내용은 비슷하나 개작, 『정본』에서 명대 학자들 추가 언급, 『채화정본』에서 『고문상서』 전승사를 스토리텔링식으로 생생하게 다름.	
27)	내용은 비슷하나 개작, 「사」 36의 문구 「원사」 26에 삽입. 「상축 8」 삭제.	不合時務者，王莽既誅，官學新廢也.無悔所學者，官學既廢，利害易誘也，即此二語其爲劉歆…
28)	어조 순화, 완전 개작.	雜說：閑話：毛氏真不知孔本源委爲此雜說乎抑知之而繆爲之乎.(모씨는 진짜로 공본의 처음과 끝을 몰라서 이렇게 잡설을 지껄이는가? 억지로 거짓을 꾸미는가?)

29)	완전 개작, 객관적으로.	馬融未嘗 _{한글} 伏生太誓, 余前既辨之矣. 雖然白魚之說見於大傳, 伏生受 _{한글} 固當, 雖然孔安國亦註白魚太誓其說李顥尚書集註. 齊楚之失唯均魯衛之政何別?(마옹은 복생의 『태서』를 육보인 적이 없다. 나는 앞에서 이미 그것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백어설'은 『상서대전』에 보이니 복생이 육을 얻어먹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안국도 『태서』의 '백어설'을 주했는데 그 설은 이과의 『상서집주』에서 나온 것이다. 제나라와 초나라의 실수가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에만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30)	내용 유사, 개작, 앞과 뒤 부분 신작, 어조 순화.	"공영달의지소 ..." 삭제
마지막	서체 다름, 지워진 부분 여러 곳.	
31)	앞부분 동일, 마지막 문장만 삭제. 수사적 의문문에서 평이한 의문문으로 한 문장 바꿈, 모군毛君이라 칭함.	毛生不揣本末, 信口胡囀: 君子訥言, 不如是也.(모생은 앞 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주둥아리만 믿고 어찌 이리 시끄럽게 구는가? 군자는 말에 신중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이다.)
32)	신작. 다산은 청대의 주이준을 주자로 읽은 듯.	朱子馬鄭之說, 本爲二十五篇疑案, 非攻漆書也. 今茲采錄, 隱然欲借重朱子, 以毀漆書也. 毛生可謂厚顏.(주자의 마옹과 정현에 관한 설은 본래 25편을 의심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칠서』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록은 은연 중에 주자를 빌미삼아 『칠서』를 헐치고 싶은 것이다. 모생은 가히 낮짝이 두껍다고 하겠다.)
33)	다산 자신의 말을 일인칭 관점에서 서술한 것을 삼인칭 관점으로 서술.	猶摸: 安排로 바꿈. 卑高: 難易로 바꿈. 毛生陳生, 乃欲曖昧漫漶, 不別眞僞. 知道者如是乎? 삭제 후 이 문장을 不可作此說로 개작. 我則不然. 考檢文薄, 察驗根脈, 執其臆, 聽其辭而後, 始敢平議. 竊鈇之疑, 於我何有?(나는 그렇지 않다. 문서와 장부를 헤아리고 검토하며 심줄과 핏줄을 잘 살펴보고 생각하며, 오장을 다스리고 [환자의] 말을 들은 후에 감히 논의를 시작한다. [영똥한 사람이 내] 도끼를 훔쳤다는 의심을 내가 어찌 하겠는가?) [열자, 설부편]

34)	거의 동일, 개작.	至於『論語』·『孝經』之說，毛生不知而爲是乎[上卯三](『논어』와 『효경』에 관해서는 모생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러는가? 생략)
35)	거의 동일.	
36)	「사」 46 (2)와 많이 다름, 한무제와 방사 소웅 간의 일을 비유한 문장 삭제, 「사」 47과 거의 비슷.	我今問之，汝南梅賾受之臧曹，何物？姚方興得之大桁市者，何物？有問梅偽禦以孔真，豈孔是梅乎余則既辨之矣[上卯八](나는 지금 묻는다. 여남의 매색이 장조에게서 전수 받은 것은 무엇인가? 요방흥이 대항의 시장에서 얻은 것은 무엇인가? 또 묻는데 매색의 위경을 공안국의 진경으로 방어한다면 공안국은 매색인가? 나는 이미 변증한 바가 있다.)
37)	많이 다름, 첫 문장 빼고 새로 씀. 모기령 비판이 주를 이룸.	삭제된 원문 이 논문의 4장 3)에 인용되고 번역됨.
38)	첫 문단은 새로 씀, 일인칭 관점 생략, 의 문문을 서술문으로, 좀 더 논리적으로, 나머지 글은 약간 다름.	何謂無序? 余未見羅氏之書
39)	새로 씀.	
40)	새로 씀.	
41)	많이 다름.	

표2

다산의 “「사」 50”과 “「원사」 40”의 내용의 차이를 분석하기 전에 일단 필자가 서론에서 했던 말을 상기해보자. 즉 이 『채화정집』이 1816년에 쓴 최초의 필사본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 점이다. 그 이유는 일단 위의 도표에서도 보듯이 「사」 46이 두 번 반복된 점이다. 만일 다산이 해배 후 다시 글을 베꼈다면 이 부분을 고쳤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 42에 모기령이 주이준을 인용해서 쓴 글에 대한 다산의 주석이 엉뚱하게 주자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도 모기령이 “朱氏『經義』考云”에서 ‘주씨’가 ‘주자’를 의미한다고 생각한 듯하다. 만약 『채화정본』이 두 번째 필사본이라면 다산이 이 부분을 반드시 정

정했을 것이다. 다산이 주이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모기령이 인용하는 글이 주자가 한 말이 아님이 분명한데도 다산은 너무나 엉뚱한 주석을 하고 있다. 아마도 주씨를 주자로 생각하고 빠르게 쓴 글로 보인다. 그러나 이 『채화정집』이 최초의 초본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같은 실수를 적어도 두 번 반복한 셈이 된다. 두 번 한 실수를 세 번 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꼭 단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위의 두 가지 사실에 비추어 보아 필자는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이 유배지에서 1816년에 정리된 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김문식이 지적했듯이 “채화정”이 1821년에 고향에 지은 건물의 이름이라면²⁴⁾ 『채화정집』은 언제 만들어졌는지 확실치 않게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제 4장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필사년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산의 해배 후 경기학자들이 본 것이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이라는 점이라고 본다.

4. “「사」 50”에서 “「원사」 40”으로의 내용적 변화 분석

제2장에서 보았듯이 다산이 받았던 지적들 중에 공통점은 바로 그의 걸러지지 않은 거친 어조가 담긴 문체였다. 다산이 비판하는 사람이 위작자로 여겨지는 동진의 매색이든 청대의 박학다식한 궤변론자 모기령이든 간에 그들을 비판할 때 쓰는 말투가 너무 거슬린다는 지적을 여러 번 들었다. 이런 말투를 이루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짧게는 호칭에서 시작해서 모욕적인 비유나 은유 표현 또는 묘사가 지나쳐 허구적 연출의 느낌이 나는 문장 등의 요소들을 통해서 표현되었다. 윗장의 표

24) 김문식, 『정약용의 경학과 경제학』, 동약학 연구총서 12, 단국대학교 출판부, 2021, 58쪽의 11번 주석 참조.

2에서는 필자가 표1에서 임의적으로 매긴 목차를 바탕으로 하면서 다산의 글쓰기 방식을 짧게 정의하고 때로 예를 들면서 『채화정집』의 원문을 인용한 것이다.

이 장에서는 다산이 어조를 변경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몇 가지 조목으로 나누어 더 자세히 분석해볼 것이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다산이 모기령에 대해 말할 때 그를 어떻게 불렀는가 하는 부분에서 다산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1) 모기령 호칭의 문제

다산이 모기령을 비판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그의 호칭에 있다. 모기령을 가장 중립적으로 부를 때 ‘모씨’라 부르는데 ‘모군’이나 ‘모생’이라 부를 때는 존칭도 아니고 동등한 관계도 아니라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마치 모기령을 유생 儒生으로 즉 학자가 아닌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부를 때 쓰는 호칭 같다.

至於『論語』·『孝經』之說, 毛生不知而爲是乎(上卯三)?

『논어』와 『효경』에 이르러서는 모생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것이 아닌가? (『사』 43)

“모생은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표현은 참으로 모기령을 무식한 사람으로 여기는 듯한 말투이다.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의 원사에서 ‘모군’이라 쓴 것은 거의 모두 ‘모씨’로 바꾸었으나 ‘모생’은 몇 군데 남겨놓았다.

2) 모기령 인신공격 표현 삭제

다산은 「사」 35에서 모기령을 “부유한사腐儒寒士” 즉 “생각이 넓아 완고하고 쓸모없으며 가난한 선비”로 정의했고 「사」 42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朱子馬鄭之說, 本爲二十五篇疑案, 非攻漆書也. 今茲采錄, 隱然欲借重朱子, 以毀漆書也. 毛生可謂厚顏.

주자의 마옹과 정현에 관한 설은 본래 25편을 의심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칠서를 공격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 채록하여 은연중에 주자의 명성과 위치를 이용하여 칠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모생은 가히 낮짝이 두껍다고 하겠다.

마지막 문장은 그야말로 그 시대의 욕을 한문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보인다. 다산이 모기령에 대해 상당히 화가 나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3) 모기령 글쓰기 방식 비판

다산은 모기령의 글을 혹독하게 비판하는데 여러 번 그의 글을 무문농법舞文弄法の 줄임말인 “무문舞文”임을 강조하면서²⁵⁾ 그의 글쓰기 방법을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25) 「사」 11. “이처럼 가지고 노는 선비가 세상에 어디 있던 말인가?”(舞弄如此, 天下有此儒乎), “지금 한대의 역사를 농락하고 매본을 덮어 감싸니 도대체 어떤 마음 씀씀이인가?”(今也舞弄漢志, 遮梅本, 抑何心哉.) 이 두 문장은 삭제되었다.

毛氏冤詞之法，自設問目，以爲敵人，而其設問之法，必鹵莽破綻，不成說話。於是歷引明文，騁其豪辯，此毛氏之詐謨也。人雖無學，孰肯曰安國不遭巫蠱，又誰曰傳說，本非賢臣(「傳說」說)，又誰曰冢宰，非官名乎(「周官」說)? 此皆初無發問之人，而自立弱敵，以冀豪勝也。後人宜知之。

모씨 『원사』의 글쓰기 방식은 그 스스로 자신의 라이벌이 물어볼 것 같은 질문을 던지는 데 있는데, 그 질문하는 방법이 반드시 단순하고 거칠며 찢어지고 터져서 말이 되지 않게 하는 데에 있다. 여기에 유명한 글들을 두루 인용해 그 호탕한 변론을 제멋대로 풀어놓지만 이것은 모씨의 속임수다. 사람이 아무리 못 배웠다한들 그 누가 공안국이 무고사건을 겪지 않았고, 그 누가 부열이 원래 현명한 신하가(「부열」설) 아니며, 또 그 누가 총재는 관명이(「주관」설) 아니라고 하겠는가?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물어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기령] 스스로 약한 적이라고 가정 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대승을 바란 것이다. 후세인들은 반드시 이 점을 알아차려야 한다. (「사」 48)

이 문장을 읽으면 다산이 얼마나 혹독하게 모기령을 비판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특히 “사람이 아무리 못 배웠다한들”이란 표현은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글을 보고 경기학자들이 어조에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어쨌든 위의 글들은 수정본에는 없다.

그렇다면 다산의 모기령 평가가 편협된 것일까? 아니면 근거가 있는

것일까? 모기령의 생애와 저작에 대한 논문으로는 김언중,²⁶⁾ 심경호,²⁷⁾ 김문식,²⁸⁾ 신재식²⁹⁾의 논문이 있다. 필자는 20세기 초에 쓰여진 『청사고』의 모기령전을 인용할 것인데 그 글의 원천은 모기령의 『고문상서원사』, 「제요」(1778년)에 쓰여진 것으로 모기령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모기령은 여러 책들을 깊고 널리 꿰고 있었는데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경학이었다. 그러나 반박하고 변론하는 것을 좋아해 다른 이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반드시 힘써 뒤집었다. 고문상서는 송대의 오역 이후로 많은 이들이 그것이 위작이라 의심하였는데 염약거에 이르러 『소증』을 짓자 모기령은 힘껏 『고문상서』가 진짜임을 변론하여 마침내 『고문상서원사』를 지었다. 또한 예전에 썼던 것들을 삭제해서 『상서광청록』 5권을 썼는데 이것은 그가 염약거 보다 뛰어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례』와 『의례』가 전국시대에 지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³⁰⁾ 『경문』을 지었는데 그가 공격하고 반박한 자들의 이름을 든다면 고염무, 염약거, 호위 이 세 명뿐이다. 이 세 명은 박학다식하여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므로 공격할 만했으며 그 아래에 위치한 사람들은 입에 올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으니 그의 오만방자함이 이와

26) 김언중, 「서하 모기령의 생애와 학술활동」, 『한국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사, 2005.

27) 심경호, 「조선후기의 경학연구법 분화와 모기령 비판」, 동양학 제29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

28) 김문식, 「조선후기 모기령 경학의 수용양상」, 『사학지』 38권, 단국사학회, 2006.

29) 신재식, 「조선후기 『고문상서』 논변과 주이준의 영향」, 『대동문화연구』 100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30) 모기령의 『고문상서원사』, 「제요提要」에는 모기령이 이 두 저서가 전국시대에 지어진 위서라고 공격했다고 쓰고 있다. “竒齡獨拾其緒論, 詆為戰國之偽書.”

같았다.³¹⁾

위의 글을 보면 다산의 모기령 평가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보편적인 평가에 크게 근거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 어조 변경을 위해서 개작한 예

다산은 여러 곳에서 약간의 개작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개작이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수정본에 없는 부분은 회색의 음영을 넣었다.

此段詐甚矣. 都尉朝·桑欽, 雖是嫡傳. 一字~~半句~~, 不傳於後世. 尹敏·楊倫, 雖亦大鳴, 片言~~雙詞~~, 不~~惠~~後學. 唯賈逵·馬融·鄭玄之學, 有傳有訓, 有注有贊. 毛~~生~~何不竝學, 依草附木, ~~如鬼如魅~~, 託于無形, 躡於無跡, 而陽明昭朗. 布示萬目者, 終不~~敢引之爲聲援~~. 豈非彼直我曲, 彼實我虛? **善惡相形, 真贗交著, 故厭惡之如此狀?**(「사」3)

이 문단은 거짓이 심하다. 도위조·상흠이 비록 적전이나 한 글자, 반 구절도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으며 윤민·양륜도 비록 크게 이름을 떨쳤으나 한두 마디라도 후학에게 혜택을 주지 못했다. 오직 가규·마옹·정현의 학문만이 전·훈·주·찬이 있을 뿐인데 모생

31) 「원사」3. “奇齡, 淹貫群書, 所自負者, 在經學. 然好為駁辨, 他人所已言者, 必力反其詞. 古文『尚書』, 自宋吳棫後, 多疑其偽, 及閻若璩作『疏證』, 奇齡力辨為真, 遂作『古文尚書冤詞』, 又刪舊所作『尚書廣聽錄』為五卷, 以求勝於若璩. 而『周禮』·『儀禮』, 奇齡又以為戰國之書, 所作『經問』, 指名攻駁者, 惟顧炎武·閻若璩·胡渭三人. 以三人博學重望, 足以攻擊, 而餘子以下, 不足齒錄, 其傲睨如此.”

은 어찌하여 이 모두를 함께 인용하지 않고 풀과 나무로 만든 [꼭
두각시로 미신을 행하는 것처럼,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 모양이
없는 것에 의존하여 자취가 없는 곳을 쫓는가? 그러나 햇빛이 환
하게 비추면 만인의 눈에 드러나니 끝까지 감히 그들을 끌어들이
응원과 원조를 받지 못 할 것이다. 어찌 상대는 끝은데 나는 굵고,
상대는 실한데 나는 허해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선악이 비교되고
진위가 서로 드러나는 까닭에 이처럼 혐오한 것인가?

위 문장이 『매씨서평』으로 거듭날 때는 다음과 같이 쓰였다.

此段詐甚矣. 都尉朝·桑欽, 雖是嫡傳, 一字不傳於後世. 尹敏·楊倫, 雖
亦大鳴, 片言不流於後學. 唯賈逵·馬融·鄭玄之學, 有傳有訓, 有註有贊,
毛氏何不竝舉, 依草附木, 託於幽陰之地, 而陽明昭朗, 布示萬目者, 終
不免諱惡? 豈非彼直我曲, 彼實我虛, 自視欷然, 不能不沮蹙耶?

이 문단은 거짓이 심하다. 도위조·상흠이 비록 적전이나 한 글자
도 후세에 전해지지 않았으며, 윤민·양륜도 비록 크게 떨쳤으나
한마디 말도 후학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다. 오직 가규·마응·정현
의 학에는 전·훈·주·찬이 있었는데, 모기령은 어찌하여 함께 열
거하지 않고 [...] 스스로 비교해보아도 만족하지 못할 것이므로 위
축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³²⁾

『매씨상서평』의 문장을 보면 다산이 모기령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

32) 정약용 지음, 이지형 역주, 『역주 매씨서평』, 문학과지성사, 2002, 153쪽.

는 것이 분명한데, 바로 “귀신이나 도깨비 같은”이란 비유에서 잘 드러난다. 이렇듯 모기령을 비하하는 비유를 많이 썼는데 삭제된 곳이 여러 곳이다. 또한 “終不敢引之爲聲援”이 “不能不沮蹙耶”로 변할 때는 작가의 시점이 모기령의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것에서, 즉 “감히 못 한다”에서 객관적인 시점으로, “할 수 없다”로 옮겨감을 볼 수 있다. 이런 글쓰기를 통해서 다산은 마치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쓴 작가의 심리 상태를 환하게 읽고 있으면서 그 작가의 감정에 이입되어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런 식의 글쓰기는 다산 스스로의 주관적인 관점을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읽힐 수도 있다. 즉 어느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묘사할 경우 그 묘사하는 사람이 심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주관적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므로 결국은 상대를 드러내기보다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경리학자들은 다산의 글쓰기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곤 했다. 즉 모기령을 공격하는 화살이 결국은 다산에게 다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런 점에 유념하여 다산이 글을 조금 바꾼 예를 보았다.

다음의 예는 「사」⁴이다.

挾天子, 以號令天下, 欲學曹操乎? 曹操挾真天子, 以威一時. 毛生尊假帝王, 以吐萬世, 浮於操矣. 蓋嘗論之, 其位愈尊, 其僭愈惡. 故無恥愚氓, 修其先譜, 假竊官封, 輕者笞之, 重者流之而已. 若有病狂, 悖逆之人, 追尊匹庶, 僭竊王爵, 罪犯綱常, 莫追誅殛, 理則然也. 今此古文, 偽舜·假禹·詐湯·賈武, 議其罪惡, 死有餘罪. 今反以衛正討偽之人, 謂之誣讎先聖. 若然, 誅莽操者, 爲侮帝王, 闢老佛者, 爲誣聖賢. 一竊其號, 唯屈躬伏地, 三拜九叩而後, 方謂忠順之人, 天下有是法哉?

(모기령은) 천자를 끼고 천하를 부리는 조조를 닮고 싶은 것인가? 조조는 진짜 천자를 끼고 한 시대를 휘둘렀으나 모생은 가짜 제왕을 떠받들면서 만세 위에 토하니 조조보다 더 경박하다. 일찍이 논한 바가 있다. 사람은 자리가 높을수록 주체넘음도 심해진다. 따라서 부끄러움도 모르는 우매한 사람이 선조의 족보를 고쳐서 벼슬을 넘봤다면 가볍게는 태형, 무겁게는 유배형에 처해질 뿐이다. 만약 미쳐서 도리를 저버린 패악하고 불순한 사람이 평민을 추송하여 주체넘게 왕의 작위를 훔치고 삼강과 오상에 어긋나는 죄를 지었다면 극형에 처해짐은 당연하다. 지금 이 고문은 순·우·탕·무를 거짓으로 서술하였으니 그 죄악을 논한다면 사형에 처해지기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오히려 바른 것을 보위하고 거짓됨을 공격하는 자를 가리켜 선성을 속이고 업신여긴다고 한다. 그렇다면 왕망과 조조를 죽인 것은 제왕을 모독한 것이고 노장과 불교를 배척한 것은 성현을 속였다고 하는 것이다. 그 이름을 한 번 훔쳤는데 몸을 굽신거리고 땅에 엎드리면서 세 번 절하고 아홉 번 고개를 조아린 후에야 충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 같으니 천하에 어찌 이런 법이 있겠는가?

이 문장이 다음과 같이 개작되었다.

挾天子以威天下, 欲用魏武之術乎? 彼所挾者, 眞天子. 毛所尊者, 假帝王. 其威亦相懸矣. 竊嘗思之, 其位彌尊, 其篡之者彌惡. 無恥愚氓, 修其先譜, 假竊官封, 其罪未甚. 若有人追尊³³⁾匹庶, 僭竊王爵, 罪犯莫追

33) 위의 주 참조.

於誅殛。理有然也。今梅氏之書，僞舜·假禹·賈湯·詐武，議其章程，死有餘罪。今反以斥僞昭姦者，謂之侮先聖。若然，誅莽操者，爲侮帝王。關老佛者，爲誣聖賢。一竊其號，唯屈躬服事而後，方爲忠順之人，天下寧有斯義哉？

천자의 지위를 믿고 천하에 위엄을 보이기 위해 위무의 술법을 쓰려고 한 것인가? 저 위무가 기댄 것은 진짜 천자였지만 모기령이 추앙하는 대상은 가짜 제왕이니, 그 위엄 또한 서로 현격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지위가 높을수록 뺏으려 하는 것은 더욱 악하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기 선조의 족보를 만들면서 거짓 관봉을 흠치는 것은 그 죄가 심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어떤 사람이 보잘것없는 필부나 서인을 추존하여 왕작을 흠친다면 그 죄는 사형을 피할 수 없으니, 이것은 이치가 그러한 것이다. 현재의 매색의 『상서』는 순·우·탕·무를 거짓 서술하였으니, 그 법을 논의해보면 사형에 처해도 남은 죄가 있다. 그런데도 지금은 도리어 거짓을 물리치고 간사함을 밝히는 자를 가리켜 선성을 모독했다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왕망과 조조를 죽인 자를 가리켜 제왕을 모독했다고 하고, 노장과 불교를 물리친 자를 가리켜 성현을 속였다고 할 것이다. 한 번 그 이름을 흠친 가짜에 대해 오직 굽실대며 그대로 따라야 충순한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천하에 어찌 이런 도리가 있겠는가?³⁴⁾

34) 정약용 지음, 이지형 역주, 『역주 매씨서평』, 문학과지성사, 2002, 153-154 쪽.

“挾天子，以號令天下，欲學曹操乎?”는 “挾天子以威天下，欲用魏武之術乎?”로 다시 쓰여졌다. 조조의 이름을 직접 써서 모기령과 비유한 것에서 ‘위나라 무제’의 줄임말인 ‘위무’로 조조의 이름을 대체한 것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호령하다’나 ‘모방하고자 한다’는 말에서 ‘위무의 술수를 쓰고자 한다’로 좀 더 둘러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曹操挾真天子，以威一時。毛生尊假帝王，以吐萬世，浮於操矣。”는 “彼所挾者，真天子。毛所尊者，假帝王。其威亦相懸矣.”로 수정되었다. 수정한 문장에서 조조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꺼리고 대명사격으로 ‘저 위무가 기댄 것’이라 하고 모기령을 가리키는 호칭 중의 하나인 ‘모생’을 ‘모’로 썼으며 ‘만세 위에 토하며 조조보다 더 경박하다’는 좀 격한 표현에서 ‘그 위엄 또한 서로 현격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는 보다 우아한 표현으로 바뀌었음을 볼 수 있다.

“蓋嘗論之，其位愈尊，其僭愈惡。故無恥愚氓，修其先譜，假竊官封，輕者答之，重者流之而已。若有病狂，悖逆之人，追尊匹庶，僭竊王爵，罪犯綱常，莫追誅殛，理則然也。”은 “竊嘗思之，其位彌尊，其篡之者彌惡。無恥愚氓，修其先譜，假竊官封，其罪未甚。若有人追尊匹庶，僭竊王爵，罪犯莫追於誅殛。理有然也.”로 변했다. 첫 번째 문장을 읽으면 다산의 글쓰기 특징 중의 하나를 알 수 있다. 마치 다산 스스로 하는 이야기에 자신이 빠져 들어 스토리텔링식의 글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 글의 양이 늘어나는 것도 쉬우며 작가에게도 글 쓰는 재미가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좀 유치해 보인다고 느끼게 될 수도 있었을 것 같다. 즉 학술적으로 보기엔 좀 가벼워 보일 수 있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래서 다산은 위의 글에서 “輕者答之，重者流之而已。若有病狂，悖逆之人.”을 삭제하고 축약해서 쓴 것으로 보인다. ‘輕者答之，重者流之而已.’는 ‘其罪未甚’으로, ‘若有病狂，悖逆之人’은 그냥 ‘若有人’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

인다. 그러나 첫 번째 버전은 글을 4자로 맞춰 쓴 글인 반면 마지막 버전은 그 글에서 핵심만 뽑아서 쓰거나 내용을 축약했으므로 리듬이 깨지는 단점이 있다. 생생한 맛은 덜한 셈이다.

5) 난이한 비유표현 삭제의 예

馬融未嘗讀伏生「太誓」, 余前既辨之矣, 雖然「白魚之說」見於『大傳』, 伏生受讀固當, 雖然孔安國亦註白魚「太誓」, 其說李願『尚書集註』, 齊楚之失唯均魯衛之政, 何別?

마융은 복생의 「태서」를 육보인 적이 없음을 나는 앞에서 이미 그것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백어설’은 『상서대전』에 보이니 복생이 육을 얻어먹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공안국도 「태서」의 ‘백어설’을 주했는데 그 설은 이파의 『상서집주』에서 나온 것이다. 제나라와 초나라의 실수가 오로지 노나라와 위나라의 정치에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사」 39)

齊楚之失唯均魯衛之政, 何別? 이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기 쉽지 않다. “齊楚之失”은 사마천의 『사기』 권 46에 나오는 「田敬仲完世家」의 이야기³⁵⁾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다. 또 “魯衛之政”은 논어의 「자로」에서 온 것임에 분명하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 두 비유가 병렬되면서 한참

35) “王建立六年, 秦攻趙, 齊楚救之. 秦計曰: 齊楚救趙, 親則退兵, 不親遂攻之. 趙無食, 請粟於齊, 齊不聽. 周子曰: 不如聽之以退秦兵, 不聽則秦兵不卻, 是秦之計中, 而齊楚之計過也. 且趙之於齊楚, 捍蔽也, 猶齒之有脣也, 脣亡則齒寒. 今日亡趙, 明日患及齊楚. 且救趙之務, 宜若奉漏甕沃焦釜也. 夫救趙, 高義也; 卻秦兵, 顯名也. 義救亡國, 威卻彊秦之兵, 不務為此而務愛粟, 為國計者過矣. 齊王弗聽. 秦破趙於長平四十餘萬, 遂圍邯鄲.”

생각을 해보아야 다산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는지 가늠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오래하게 되면 이해를 완전히 하지 못 하고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거나 이해한 것을 다산에게 직접 물어봐서 확인을 하거나 해야 확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이런 식의 글쓰기는 독자의 지식과 사색을 거치지 않은 경우 어려운 글이 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은유 표현을 다산은 여러 곳에서 삭제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최소화하려는 배려에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6) 스토리텔링 식의 글쓰기에서 학술적인 글쓰기로 바꾸기: “「사」 36”

다산은 다음 글에서 여러 『상서』 학자들이 그러했듯이 공안국 『고문상서』의 전승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런 글은 『매씨상서평』의 여러 곳에서 보이는데 이 글은 『매씨상서』로 개편하면서 수정이 되었다. 어떤 점을 수정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 전에 우선 다산이 비판하고 있는 모기령의 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賈馬鄭三人，則原非孔學。雖賈逵父賈徽，曾受書塗曄，是古文正派。而
其後逵與馬鄭，則皆受杜林『漆書』之學。雖名為古文，而實與孔壁古文不
同。

“가규·마용·정현 세 사람은 원래 공학 [공안국의 학파]이 아니다.
오히려 가규의 부친 가휘는 일찍이 도운에게서 『상서』를 전수받
았다. 이것이 고문정파이다. 그런데 그 뒤에 가규·마용·정현이

다 두림의 ‘칠서지학’을 배웠다. 비록 이름은 고문이라고 하나 실제로 공백 고문과는 같지 않다.”³⁶⁾

여기서 모기령은 『후한서』의 「가규전」의 일부분만³⁷⁾을 인용해 가회가 도운에게서 『상서』를 전수받은 것을 바탕으로 말을 시작하나 『후한서』의 「가규전」에 있는 다른 내용은 모기령이 마음대로 바꾸었다. 마치 가회가 받은 텍스트와 그의 아들 가규가 읽은 텍스트가 다른 것처럼 썼다. 다산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씨상서평』, 「사」 36에서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塗惲者, 都尉朝之嫡傳也(上乙二). 塗惲之學, 傳之賈徽(上乙九). 達以徽子, 何苦舍家傳之正學, 橫走別派乎? 下喬木而入于幽谷, 棄康莊而困于荊棘, 天下無此人也. 賈徽·杜林本是同門, 其師王璜. 塗惲其祖, 都尉朝. 劉歆不幸王莽之時, 建此古文, 立身一敗, 萬事瓦裂. 官學既廢, 門徒四散, 流離兵亂, 舊游零落(上乙七). 杜林則淒涼, 一卷之書, 保之若趙氏遺孤, 以傳于衛宏·徐巡(上乙七), 而賈徽則幸有賢子, 弱冠通經(見本傳). 父傳子受, 不煩束脩, 時移事定之後, 衛宏·賈逵, 符驗券合, 針投磁吸, 其源既一, 厥門不二. 故杜林『漆書』, 賈逵爲之作訓, 尊師述父, 兩盡其道. 毛氏乃云, 舍其正派, 投托別門, 何其誣矣? 賈·馬·鄭者, 孔安國之嫡傳也.

도운은 도위조의 적전이다(상을2). 도운의 학문이 가회에게 전해

36) 『古文尚書冤詞』, 卷3, 10,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2021, 11, 1), <https://ctext.org/>; 정약용 지음, 이지형 역주, 『역주 매씨서평』, 문학과지성사, 2002, 192쪽.

37) “부친 휘는 유희를 따라다니며 『좌씨춘추』를 받았고 『국어』와 『주관』을 익혔으며 『고문상서』를 도운에게서 전수받았다.”(父徽, 從劉歆受『左氏春秋』, 兼習『國語』『周官』, 又受『古文尚書』於塗惲.)

졌다(상을9). 가휘의 아들인 가규가 무엇 때문에 집안에 전해지는 정학을 버리고 다른 파로 엉뚱하게 빠졌겠는가? 큰 나무에서 내려와 깊은 계곡에 들어가거나 사방으로 확 트인 큰 길을 버리고 가시밭길에서 고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가휘와 두림은 본래 동문이었는데 모두 왕황에게서 사사했다. 도운의 조상은 도위조였다. 유흠은 불행히도 왕망의 시기에 이 고문을 [관학에] 세워서 자신의 명성을 한 번에 망치게 되고 만사를 와해시켜 버렸다. 관학이 폐지되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여기 저기 떠돌아다니다 병란을 만났으니 예전에 그와 함께 거닐던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졌다(상을7). 두림은 처량했는데 [겨우 남은 한 권의 책을 마치 “조씨의 유일한 고아”처럼 아끼며 위굉과 서순에게 전해주었다(상을 7). 가휘에 대해 말한다면 그는 다행히도 똑똑한 아들을 두었는데 약관의 나이에 경을 통달하여(본전에 보임), 아버지가 가르침을 주면 아들이 그것을 전수받았으니 속수의 예를 번거롭게 갖출 필요가 없었다. 시대가 바뀌고 사정이 나아진 후에는 위굉과 가규가 부험이 딱 들어맞듯, 바늘을 던지자 자석이 그것을 당기듯 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샘이 한 곳이니 그들이 드나드는 문도 두 곳이 아니었다. 따라서 두림의 『칠서』에 대해 가규가 훈을 지어 스승을 존경하고 아버지를 이으니 스승과 아버지에게 할 도리를 다 한 것이다. 모씨가 이에 말하기를 그들의 정과를 버리고 다른 문에 몸을 던졌다 하니 어찌 그렇게 무고하는가? 가규, 마옹, 정현은 공안국의 적전이다.

이 글을 읽을 때 드는 느낌은 무엇보다도 전승사의 스토리텔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일 것이다. 서한의 도운에서 동한의 가규에까지 전해

지는 『고문상서』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대하소설처럼 흥미롭고 전승의 인과 관계가 분명하게 서술되어있다. 게다가 상식에 호소하는 비유들, 즉 “무엇 때문에 집안에 ~ 고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가 가르침을 주면 아들이 ~갓출 필요가 없었다.” 등의 표현 때문에 글이 생생하고 친근하게 다가와서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이런 문장들은 모두 수정본에서 삭제되었다. 아마도 학술적이라기에는 너무 친근하다고 생각되었는지 모르겠다.

두 번째로 다산은 한 권³⁸⁾만 남은 고문상서를 마치 “조씨의 유일한 고아”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유래한 조순의 이야기에 근거하지만 원대에 쓰인 유명한 잡극 『조씨의 고아(趙氏孤儿)』를 마음에 두고 한 말 같다. 이 잡극은 중국의 4대 고전 비극에 꼽히는 유명한 작품인데 내용이 복수를 주제로 한다. 단지 조씨 집안의 유일하게 생존한 고아를 살리기 위한 긴박함처럼 『고문상서』를 전쟁 중에도 품고 다녔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난할 것이나, 마치 한 권으로 남은 외로운 『고문상서』가 후에 가짜 흥내를 내는 『고문상서』들에게 복수라도 해야 한다는 것을 연상하게끔 하는 비유일 수도 있다. 하지만 비유의 거리가 문맥상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다산이 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글을 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산은 위의 글을 아주 많이 고쳐서 『매씨서평』, 「원사」 25를 지었다. 그곳에는 위에서 본 문장들이 모두 빠져있다. 번역본³⁹⁾이 있으니 여기서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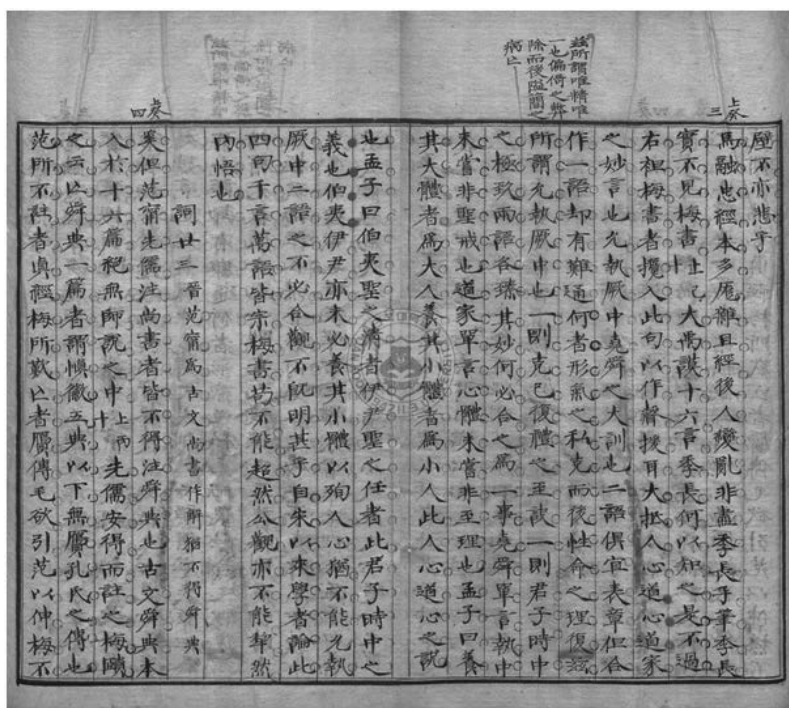
38) 여기서 말하는 권은 “책 한 권, 두 권” 할 때의 분류사가 아니라 한 두루마리로 축약된 고문상서를 이른다.

39) 정약용 지음, 이지형 역주, 『역주 매씨서평』, 문학과지성사, 2002, 192~193쪽.

7) 주자의 '16자 심법' 이론과의 거리두기

다산의 「대우모」 '16자 심법' 주석은 여러 경기학자들에게 많은 의문과 질문을 받은 것으로 유명하다. 이 주석을 우리는 이제까지 『매씨서평』 5권 「대우모」에서 읽었다. 그런데 다산은 『매씨상서평』 3권, 「사」 22에서 벌써 선보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생각과 달리 다산의 주석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자와 현격한 거리를 두고 있지 않았다. 그것을 김매순이 편지에서 언급할 것이다. 즉 다산의 주석에 두 가지 모순되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을 지적할 것이다. 김매순의 지적을 읽기 전에 다산의 글을 먼저 읽어보자.

위 원문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유는 이미지 상단에 쓰여진 네 줄의 문구 때문이다. 이 문구는 필사할 때 실수로 빠뜨린 부분을 상단에 적어놓은 것인데 삽입되어야 할 부분을 표시하기 위하여 여섯 번째 항의 하단 부분에 빨간 색으로 가로줄을 그은 것을 볼 수 있다. 여백에 쓰인 문장의 존재가 다산이 1816년에 1810년의 초고본을 베껴 쓸 때 빼 먹은 부분인지 아니면 김문식의 추측대로 1821년경에 1816년의 필사본을 다시 베껴 쓸 때 잊은 부분을 쓴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베끼다가 한 실수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문장이 대구對句 식으로 쓰여져 있어서 반복되는 '茲所謂' 때문에 베껴 쓰다가 헛갈린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을 언제 베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여기서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1816년이 아니라 그 후에 필사하다가 한 실수라고 한다면 이미 앞에서 지적한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세 번 반복한 것이 된다. 즉 크게 고민하지 않고 베낀 것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베낀 사람이 다산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르는 다산의 아들이나 제자들이 필사를 한 것이 아니었을까하는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이 점은 숙고해보아야 할 숙제로 남겨



16자 실험 : 「사」 22 후반부

놓고 위 이미지에 있는 글을 아래에 옮겨 놓고 번역해보자.

馬融『忠經』, 本多厖雜, 且經. 後人變亂, 非盡季長手筆. 季長實不見梅『書』(上已十). 「大禹謨」十六言, 季長何以知之? 是不過右袒. 梅『書』者, 攬入此句, 以作聲援耳. 大抵人心道心, 道家之妙言也. 「允執厥中」, 堯舜之大訓也. 二語, 俱宜表章, 但合作一語, 却有難通. 何者? 形氣之私克而後, 性命之理復. 茲所謂「惟精惟一」也. 偏倚之弊除而後, 隘簡之病亡, 茲所以「允執厥中」一, 則「克己復禮」之至訣. 一, 則「君子時中」之極致. 兩語, 各臻其妙, 何必合之, 爲一事? 堯舜單言「執中」, 未嘗非聖戒也. 道家

單言 ‘心體’, 未嘗非至理也. 『孟子』曰, 養其大體者, 爲大人, 養其小體者, 爲小人. 此人心道心之說也. 『孟子』曰, 伯夷, 聖之清者. 伊尹, 聖之任者. 此‘君子時中’之義也. 伯夷伊尹, 亦未必養其小體, 以殉人心. 猶不能 ‘允執厥中’二語之不必合觀, 不既明甚乎! 自宋以來, 學者論此四句, 千言萬語, 皆宗梅『書』, 苟不能超然公觀, 亦不能藜然內悟也.

마응의 『충경』은 본래 뒤섞여 있고 어수선한 곳이 많고 또 경문을 후인이 바꾸어 어지럽혀 놓아서 다 계장(즉 마응)이 직접 쓴 글이 아니다. 계장은 실제로 매씨의 『상서』를 보지 못했으니(상기10), 「대우모」 16자를 계장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이는 매색의 『상서』를 지지하는 자가 이 구절을 끼워 넣어 [매색을] 옹원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개 ‘인심도심’은 도가의 묘언이요, ‘윤집궐중’은 요순의 대훈이다. 이 두 말은 모두 마땅히 표창해야 할 것이다. 허나 한 구절로 합쳐서 만들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게 된다. 왜 그런가? 형기의 사사로움을 극복한 후에야 성명의 이치가 회복된다. 이것이 이른바 ‘유정유일’이다. 치우침의 병폐가 제거된 뒤에야 편협하고 오만함의 병폐가 사라진다. 이것이 이른바 ‘윤집궐중’이다. 첫째는 ‘극기복례’의 지극한 비결이다. 둘째는 ‘군자시중’의 극치이다. 각각의 두 말은 각각 지극히 묘한데 어찌하여 꼭 합쳐서 한 가지 일을 만드는가? 요순이 말한 단 한마디 ‘집중’은 성인의 계율이 아닐 수 없다. 도가의 한마디 ‘심체’는 지극한 이치가 아닐 수 없다. 『맹자』가 대체를 기르는 자는 대인이 되고 소체를 기르는 자는 소인이 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인심도심설이다. 『맹자』에 이르기까지 백이는 성인들 중 맑은 분이고 이윤은 책임을 지는 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군자시중’의 뜻이다. 백이와

이윤은 또한 반드시 소체를 기르지 않았어도 인심 때문에 죽음을 당했다. 마땅히 ‘인심도심’과 ‘윤집결중’이란 두 말은 반드시 함께 고려될 수 없음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가. 송 이래의 학자들이 이 네 구절을 논하면서 천언만어를 쓰면서 모두 매색의 『상서』를 근원으로 하니 [우리는] 진실로 초연히 공평하게 볼 수 없고 또 마음속으로 석연히 깨달을 수 없게 되었다.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여기서 특이한 점은 여백에 쓰여진 문장을 김매순이 읽고 다산에게 언급을 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김매순이 다산의 글을 아주 꼼꼼히 읽었음을 의미한다. 위의 글에 대하여 김매순은 음력 1822년 1월 29일에 보낸 편지의 별지에 위 문장을 세 구절로 나누어 첨하고 평하였다.⁴⁰⁾ 첫째는 “형기의 사사로움이 극복된 뒤에야 성명의 이치가 회복되니 이것이 ‘유정유일’이다.”이고 둘째는 위의 원문 이미지에서 보듯이 위의 여백에 쓴 것에 대한 평이다. 즉 “치우침의 병폐가 제거된 뒤에야 편협하고 오만함의 병폐가 사라진다는 이것이 이른바 ‘윤집결중’이다.”라는 문장이다. 마지막으로 “진실로 초연히 공평하게 볼 수 없고 또 마음속으로 석연히 깨달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한 마지막 문장이다.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 김매순은 다음과 같이 적었다.

人心一下十二字之出於『荀子』，昭然無疑。而今詳『荀子』本文，兩絕各說，元不相蒙。且其所謂“未有兩而能精者”，細繹語意，乃一而後精，非精而後一也。乃單執盡善之謂，非擇善固執之謂也。與朱子注解，實難強

40) 정약용, 김매순 외, 『다산과 대산·연천의 경학논쟁』, 한길사, 2000, 43-46쪽.

合爲一。今欲剖破偽案，表章嘉言，使之各還本色，不相紛拏，而却曰“形氣之私克而後，性命之理復”，依舊是朱子注解之旨，恐不免有些拖帶，請更裁商。

살피건대 인심 이하 12자가 『순자』에서 나왔음은 명백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순자』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니 두 구절은 독립된 설이요, 원래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른바 “두 가지 일에 마음을 쓰면서 능히 정밀할 수는 없다.”라고 한 것의 의미를 세밀하게 살펴보면, 전일專一한 뒤에야 정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정밀한 뒤에야 전일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한 가지만을 잡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지 선을 택하여 굳게 지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자의 주해와 실로 억지로 합쳐서 하나로 되게 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위안偽案을 분석·논파하고 아름다운 말을 표장하여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키고 어지럽게 뒤섞이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서 오히려 “행기의 사사로움이 극복된 뒤에야 성명의 이치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이는 여전히 주자 주해의 취지에 다소 끌려감을 면치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재단·상량하기 바랍니다.⁴¹⁾

김매순은 인심도심 구절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었음을 고백하며 다산의 의심이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평가를 한다. 또한 다산의 주석에서 아직도 주자의 사상에서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한 곳을 지적하며 다산의 참신한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가기를 원하는 쪽

41) 정약용, 김매순 외, 『다산과 대산·연천의 경학논쟁』, 한길사, 2000, 43~44쪽.

으로 고칠 것을 제안한다. 이 점이 다산에게 용기를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산도 김매순의 지적에 동의한 듯하다. 왜냐하면 수정본에는 위의 구절을 모두 삭제하고 「대우모」 16자 주석에서 김매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기 때문이다.

다산은 누구보다도 김매순의 평가에 민감했다. 「자찬묘지명」에도 그의 긴 편지구절을 통째로 실은 것으로 보아도 그렇고 위의 평가에 적극 반응한 점에서도 그렇다. 반면 홍석주가 같은 구절에 대해서 독창성을 버리고 주자를 따를 것을 요구하며 반드시 고칠 것을 명시한 첨에 답할 때엔 말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장했으나 다산은 사실상 고치지 않았다. 하지만 김매순이 다산에게 보다 이론적으로 정합성을 추구하라는 말에는 답을 한 것이다. 그 정합성이 이루어지려면 주자의 그늘에서 완벽하게 벗어났어야 했던 것이다. 이처럼 다산의 「대우모」 인심도심설이 나온 배경에 김매순이 있었음을 위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 “「사」 50”에서 『정본 여유당전서』 『매씨서평』 “「원사」 40”으로의 변화를 통하여 다산의 글쓰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서 이 논문의 기본 전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논문을 구성하는 절차를 경기학자들의 평가에 기본을 둔 결과 마치 그들의 평가가 결국 옳았고 다산의 글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식으로 논지가 전개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어떤 것을 바꿀 때는 그것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다는 선입견을 투영한 것으로 말이다. 사실 완벽히 부인하기 힘든 반론이다. 하지만 다

산이 자신의 초본을 바꾼 이상 그 바꾼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에서 경기학자들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자연스런 의심이 전제되었다. 이런 작업을 통하여 다산과 동시대에 살던 학자들이 어떤 것에 예민하게 반응했는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평가 기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결가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에도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다산은 그 시대의 학자들이 중요시했던 문체보다 기본적인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당하면 문체는 이차적인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 바로 그것이 그가 수정을 끝까지 미룬 것이 아닐까 의심해 본다. 하지만 다산은 워낙 많은 글들을 썼기 때문에 신속히 고치지 못하고 끝까지 미루다가 고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다산의 글쓰기 방식이 상당히 즉흥적이고 생생하며 여과 없이 솔직하게 쓰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채화정집』의 글을 읽으면서 훌륭한 학자로서의 다산보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인간적인 다산과 한결음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다. 만일 다산이 이 글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다산의 『상서』 주석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 것이다. 수정을 통하여 다산의 글이 훨씬 더 정교해지고 우아해졌으며 학술적이고 논리적으로 변했음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과 기타 수정본에서 『정본』에 이르는 일련의 변화 과정을 다뤄야 했을 것이다. 그 작업은 차차 이루어야 할 과제로 남긴다.

(논문투고일 2021년 9월 27일, 심사확정일 2021년 9월 27일, 게재확정일 2021년 10월 8일)

참고문헌

- 김문식, 「조선후기 모기령 경학의 수용양상」, 『사학지』 38권, 단국사학회, 2006.
- 김문식,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학』, 단국대학교 출판부, 2021.
- 김문식, 「정약용의 『상서』 주석서 계열 고찰」, 『다산 필사본 연구』, 다산학술문화재단, 2019.
- 김문식, 『朝鮮後期經學思想研究 - 正祖와 京畿學人을 중심으로』, 일조각, 1996.
- 김문식, 『정약용의 경학과 경세학』, 동약학 연구총서 12, 단국대학교 출판부, 2021.
- 김보름, 「단국대 연민문고 소장 『매씨상서평』의 학술적 가치에 대하여」, 『한문학보』 27권, 우리한문학회, 2012.
- 김언중, 「서하 모기령의 생애와 학술활동」, 『한국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사, 2005.
- 다산학술문화재단 편, 『다산학사전』, 사암, 2019.
- 신재식, 「조선후기 『고문상서』 논변과 주이준의 영향」, 『대동문화연구』 100권,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 심경호, 「조선후기의 경학연구법 분화와 모기령 비판」, 『동양학』 제29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9.
- 정약용 지음, 이지형 역주, 『역주 매씨서평』, 문학과지성사, 2002.
- 정약용, 김매순 외, 『다산과 대산·연천의 경학논쟁』, 한길사, 2000.

정약용, 신작, 『다산과 석천의 경학논쟁』, 한길사, 2000.

조성을, 『연보로 본 다산 정약용 - 살살이 파헤친 그의 삶』, 지식산업사,
2016.

웹사이트

毛奇齡, 『古文尚書冤詞』 卷3, 10,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2021, 11, 1),
<https://ctext.org/>

趙氏孤兒, 維基百科(2021, 9, 1), <https://zh.wikipedia.org/wiki/>

국문요약

본 논문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필사본인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에서 최종본 『정본 여유당전서』 『매씨서평』으로의 형식과 내용 변화를 “사” 50”에서 “원사” 40”으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 것이다. 이 분석을 위해 첫째로 다산이 해배 후 1819년에서 1827년 사이에 경기학자들과 주고받은 편지글들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매씨상서평』의 “사” 50”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했다. 경기학자들이 다산의 글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지적한 것은 그의 거친 어조와 허구적인 글쓰기 방식이었다. 둘째로 “사” 50”에서 “원사” 40”로의 형식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두 개의 도표를 작성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도표에 바탕해 글쓰기와 내용의 변화를 예를 들어가며 자세히 분석했다. 경기학자들의 지적에 따른 다산의 글쓰기의 변화를 통해서, 다산의 작가와 학자로서의 성격과 문체와 더불어 그의 생각의 깊이를 헤아려 볼 수 있다.

주제어 | 다산 정약용, 경기학자, 『채화정집』의 『매씨상서평』, 정본 『매씨서평』, 「사」, 「원사」, 문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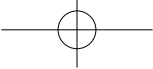
Abstract

Philological Review of *Maessi Seopyeong*(*Critique of Mr. Mei's Book of Documents*) by Comparison between *Chaehwajeong Collection* and *Official Edition of Yeoyudang Jeonseo*

NOE Jee Hyun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Lyon 3 University, France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the change in form and content of the *Critique of Mr. Mei's Book of Documents* from that of the *Chaehwajeong Collection* to that of the *Official Edition of Yeoyudang Jeonseo*. The focus of the change is from “「Sa」 50” to “「Wonsa」 40 ”. For this analysis, first, letters exchanged with Gyeonggi scholars between 1819 and 1827 after Tasan was released from his bannishment were examined. Among them, our focus was especially put on the content related to “「Sa」 50” of the *Critique of Mr. Mei's Book of Documents*. What the Gyeonggi scholars shared in reading Tasan's book was his harsh tone and fictional writing style. These data serve as the basis for the analysis in the third chapter. Second, the formal change from “「Sa」 50” to “「Wonsa」 40” was analysed with the help of two charts. Finally, based on the second chart of the two, the changes in literary style and content were analyzed in detail by examples. Through the changes in Tasan's



writing according to the remarks of Gyeonggi scholars, it is possible to estimate Tasan's character and style as a writer and scholar, as well as the depth of his thought.

Key Words | Tasan Jeong Yak-yong, Gyeonggi scholars, *Maessi Sangseopyeong of Chaehwajeong Collection*, *Maessi Seopyeong of the Official Edition of Yeoyudang Jeonseo*, 「Sa」, 「Wonsa」, literary style.

